

2019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신약의 정경 안에서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지 6

말씀, 어린양, 숨—
요한복음에 계시되신 그리스도

성경: 요 1:1-2, 14, 18, 29, 3:14-15, 20:22, 벤전 1:20, 계 13:8

I. 신격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 요 1:1.

- A. 말씀은 비밀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설명이며 표현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의되시고 설명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 요 1:18.
- B.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 이다', 자존하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 출 3:14-15, 요 8:24, 28, 58, 히 7:3.
 - 1. 그리스도의 신격은 영원하며 절대적이다 — 요 1:1-2.
 - 2.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 C.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육체가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 요 1:14.
 - 1. 말씀께서는 육체가 되심에 의해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이끌어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거처로서 땅 위에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장막이 되셨으며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셨다 — 요 1:17.
 - 2. 육체되심에서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되시어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 3. 하나님의 독생자의 육체되심은 또한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재 안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18.
 - a.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되시고 설명되시며 정의되신 하나님이다.
 - b.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분배되신 하나님이다.
 - c. 빛은 우리가 빛비춤을 받아 하나님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빛남이다.
 - d.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곧 사람이 누린 하나님이다.
 - e. 실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곧 사람이 실재화한 하나님이다.

II. 구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 요 1:29.

- A.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인류로부터 죄를 없애버리신다 — 요 1:29.
 - 1. 사탄을 통해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고 사탄은 죄, 곧 자신의 독성을 인류 안으로 주입했다 — 롬 5:12, 19.
 - 2. 하나님의 어린양은 세상으로부터, 인류로부터 이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 오셨다.
 - 3. 그리스도는 죄와 죄들을 처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 고전 15:3, 벤전 2:24, 히 9:26, 28, 고후 5:21.

- B. 구속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들, 즉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셨다 — 창 3:24, 롬 3:23.
1.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 사 64:6.
 2.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자, 곧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필요가 있었다 — 계 13:8.
- C. 베드로전서 1 장 20 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속하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아셨다.
1.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아시는 것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하는 어린양이 되시는 것을 미리 아셨고 예비하셨다.
 3.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 딤후 1:9.
 4.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임을 받은 분으로 정하셔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시간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시도록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 행 2:22-23.
 5.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양"이시다 — 계 13:8.
 - a.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존재하게 된 때부터 죽음을 당하셨다.
 - b.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인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이 존재하게 된 때부터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어린양은 죽음을 당하셨다 — 계 13:8, 벰전 1:20.
- D. 요한복음 1 장 29 절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성취로서 육체 안에 계신 말씀을 상징한다 — 요 1:1, 14.
1.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들의 총체이시다 — 히 9:14, 28, 10:1-10.
 2. 그리스도는 속죄제물이실 뿐 아니라 또한 속건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요제물, 거제물, 자원제물, 전제물이시다.
 3. 모든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이 있다.
 4. 모든 제물들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 요 3:14-15, 벰후 1:4.
 - a.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역량을 갖게 된다 — 히 10:19-20.
 - b. 우리는 우리가 어린양을 통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할 권리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다 — 히 4:16: 비교 계 22:14.
 - c.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속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 요 1:29, 14:6, 20.

III.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숨이시다 — 요 20:22.

- A.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완결되신 영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요 7:39, 갈 3:14, 빌 1:19.
1. 완결되신 영은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의 삼일 하나님이시다 — 요 7:39.
 2. 삼일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륜적인 문제이다 — 요 1:14, 히 9:14, 고전 15:45 상.
 - a.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오직 경륜적으로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바뀌셨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분의 경륜 안에서 바뀌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으셨다.

3. '과정을 거치신'이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가리킨다. '완결되신'은 과정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 요 7:39.
 4. 완결되신 영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이 복합되신 것이다 — 요 7:39, 행 16:7, 롬 8:10-11, 빌 1:19.
 5.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완결되신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 요 7:39.
 - a.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창 1:2), 요한복음 7장 39 절의 때에는 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롬 8:9)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이신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 b. 주 예수님은 부활 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셨고, 이러한 영광스럽게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께서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다 — 눅 24:26, 빌 1:19.
 - c. 마지막 아담, 곧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 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의 요소와 인성의 요소를 둘 다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실재를 포함하신다 — 고전 15:45 하, 행 16:7, 롬 8:9.
- B. 완결되신 영은 부활 안에 계신 아들에 의해 거룩한 숨으로써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지셨다 — 요 20:22.
1.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완결되신 영이신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셨다 — 요 1:29, 20:22.
 - a. 20 장 22 절에 있는 성령은 7 장 39 절에서 기대했고 14 장 16 절과 17 절, 26 절, 15 장 26 절, 16 장 7 절과 8 절 및 13 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음을 의미한다.
 - b. 그 영으로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셨고, 제자들 안에서 사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그분에 의해 그분으로 살 수 있었고, 그분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었다 — 요 20:22, 14:19-20, 15:4-5.
 - c.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제자들 안으로 분배하셨다.
 - d. 20 장 22 절에서 성령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 이유는 이 영께서 그분의 숨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영은 아들의 숨이시다.
 2.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며 이 영은 우리의 숨이시다 — 고후 3:6, 17, 요 20:22.
 - a.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시기 위해서였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들이쉬기 위한 거룩한 숨이 되셨다 — 요 1:29, 20:22.
 - b. 그리스도는 어린양-나무이시다. 그것은 그분이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어린양이시며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나무이시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어린양-나무가 거룩한 숨이다 — 요 1:29, 11:25, 15:1, 20:22.
 - c. 지금 우리는 말씀과 어린양과 나무와 숨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말씀은 표현을 위하고, 어린양은 구속을 위하며, 나무는 생명의 분배를 위하고, 숨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다 — 요 1:1, 29, 10:10 하, 14:19.
 3. 완결되신 영은 숨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시다. 오직 숨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직 숨만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 — 갈 3:2-3, 14, 빌 1:19, 계 2:7.